

KIEP

##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6월 4일

ISSN 1976-0507 Vol. 1 No. 6

##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전개 동향과 시사점

정 성 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jung@kiep.go.kr, Tel; 3460-1202)

이 형 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hklee@kiep.go.kr, Tel; 3460-1069)

- ▣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 및 국제협력은행(JBIC)에서 발표한 일본기업의 해외사업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 현재 해외 현지법인은 신규설립 감소와 철수 증가 실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매출액, 해외생산, 수익, 설비투자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 일본기업들은 향후에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외 설비 투자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당분간 일본기업의 해외생산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신규설립은 감소하고 철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해볼 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생산체제는 유지하면서 이를 확대·강화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 해외사업 확대 지역으로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가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러시아 등 다른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해외투자 결정 요인으로는 저임금보다 시장성을 중시하고 있음.
- ▣ 일본정부는 투자입국을 천명하고(『통상백서 2006』),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시장의 투자·비즈니스 환경 정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환경 정비,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등을 추진(『글로벌 경제전략』, 2006년 4월 발표)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2007년 2월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이후 ‘Global Korea’가 발족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향후 부처간 유기적 협력 아래 대책별 일정을 수립·점검함으로써 성과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임. 또한 해외투자 증가가 국내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 배경

-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일본기업은 1985년 플라자합의에 의해 발생한 엔화 강세와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해 왔음.
- 그러나 지난 20여년에 걸쳐 투자대상지역의 투자환경 변화, 새로운 투자유망지역의 등장,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무역제도의 변화로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양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파악하여 정책 입안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보고서는 지난 3월말에 발표되었음.
- 이 보고서는 2006년 3월말 현재 해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음.
- 또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제조업 기업의 해외사업 및 투자활동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1989년부터 매년 『일본 제조업 기업의 해외사업 전개에 관한 조사보고』를 발표해왔음.
- 이 보고서는 3개 이상의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한 일본의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 실태와 과제 및 향후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일본 제조업 기업의 해외투자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임.
- 특히 이 보고서에는 향후 일본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투자대상 국가·지역이 나타나 있어 우리 정부나 기업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됨.
- 본 자료는 경제산업성과 국제협력은행이 각각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일본 제조업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과제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 정부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경제산업성의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

### 가. 조사 개요

- 일본 경제산업성은 매년 일본기업의 해외사업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3월말에는 2005년도 일본기업의 해외사업활동 실태를 파악한 『제36차 해외사업 활동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함.
-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는 일본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의 실태를 분명히 함으로써 각종 시책의 기획·입안·실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조사 대상
  - 2006년 3월말 현재 해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일본기업(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제외, 이들을 이하 ‘본사기업’ 이라고 함.)을 대상으로 함.
  - ‘현지법인’ 은 해외 자(子)회사와 해외 손(孫)회사를 총칭하는데, 해외 자회사란 일본측 출자비율이 10% 이상인 외국 법인을 지칭하며, 해외 손회사는 일본측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가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 법인을 지칭함.
- 조사 방법 및 시점
  - 본사기업에 조사표(본사기업 조사표 및 현지법인 조사표)를 배포하여 조사 대상 기업의 자체신고 방식으로 실시한 우송조사임.
  - 2006년 3월말 현재 기록된 가장 최근 결산실적에 대해 2006년 7월 조사를 실시함.
- 회수 상황
  - 회수율은 69.6%이며 집계 대상 기업 수는 본사기업 3,176개사와 현지법인 15,812개사임.

## 나. 일본기업의 해외사업활동 현황

- 경제산업성의 2005년 일본기업 해외사업활동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 현지법인 수는 전체 15,812개사 중에서 업종별로 제조업이 8,020개사로 50.7%를, 비제조업이 7,792개사로 49.3%를 차지해 양측 분포가 비슷함(부표 1 참고).
  - 제조업에서는 수송기계(1,375개사, 8.7%), 정보통신기계(1,181개사, 7.5%), 화학(1,089개사, 6.9%), 일반기계(823개사, 5.2%)의 순으로 많이 나타남.
  - 비제조업에서는 도매업(3,758개사, 23.8%), 운수업(1,006개사, 6.4%), 서비스업(937개사, 5.9%)의 순으로 많이 나타남.
- 해외 현지법인의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가 9,152개사(5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북미가 2,819개사(17.8%), 유럽이 2,379개사(15.0%)로 많이 나타났음.
  -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많은 4,044개사(25.6%)였으며, ASEAN4는 2,711개사(17.1%), NIEs3는 2,035개사(12.9%)였음(부표 2 참고).
- 본사기업의 규모별로 해외 현지법인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12,556개(79.4%)로 중견·중소기업의 3,256개사(20.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부표 3 참고).

## 다. 일본기업 해외사업활동의 주요 분야별 특징

### 1) 해외 현지법인 진출 및 철수

#### (1) 신규설립·자본참가 감소

- 2005년도 신규설립·자본참가 현지법인 수는 전년도 대비 259개사가 감소한 494개사로,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로 전환되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

- 제조업(182개사, 전년대비 136개사 감소)과 비제조업(312개사, 동 123개사 감소)이 모두 감소했으며 3년 연속으로 비제조업이 제조업을 상회했음(부표 4 참고).
- 업종별로 보면, 도매업(116개사, 전년대비 46개사 감소), 서비스업(54개사, 동 27개사 감소), 수송기계(30개사, 동 32개사 감소), 일반기계(21개사, 동 25개사 감소) 부문에서 감소가 현저함(그림 1 참고).
- 지역별로 보면, 북미는 2년 연속 감소(76개사, 전년대비 7개사 감소), 아시아는 대폭적인 감소(303개사, 동 198개사 감소)를 보였으며, 중국은 3년 연속 감소(185개사, 동 143개사 감소), 유럽도 감소(76개사, 동 21개사 감소)를 보임(부표 5 참고).

## (2) 철수 증가

- 진출지역에서 철수<sup>1)</sup>한 현지법인의 수는 2005년도 현재 560개사로 3년 만에 증가를 보임. 이 중 제조업은 255개사(전년대비 40개사 증가), 비제조업은 305개사(동 18개사 감소)로 제조업의 철수가 증가했음(부표 6 참고).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수송기계(35개사, 전년도 대비 18개사 증가), 화학(40개사, 동 10개사 증가) 부문의 철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일반기계(19개사, 동 5개사 감소), 전기기계(18개사, 동 2개사 감소)의 철수는 감소했음.
- 비제조업에서는 도매업(111개사, 전년대비 15개사 감소), 운수업(24개사, 동 4개사 감소) 등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52개사, 동 7개사 증가), 소매업(18개사, 동 4개사 증가)은 증가했음(그림 2 참고).
-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242개사, 전년대비 4개사 증가) 및 유럽(122개사, 동 24개사 증가)은 증가한 반면 북미(135개사, 동 1개사 감소)는 약간 감소함.
-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109개사(전년대비 4개사 증가), ASEAN4가 71개사(동 6개사 감소), NIEs3가 51개사(동 9개사 감소) 등의 철수 현황을 보였음(부표 7 참고).

1) 철수란 '해산 및 철수·이전'과 '출자비율의 하락'(일본측 출자비율이 0~10%로 하락한 경우)을 의미함.

- 주요 철수 이유로는 ① 조직 재편·경영자원의 개선 등에 따른 거점 통폐합(54.6%), ② 제품수요 판단 착오에 의한 판매 부진·수익 악화(6.2%), ③ 현지기업과의 경쟁 격화에 의한 판매 부진·수익 악화(4.8%), ④ 제3국 기업과의 경쟁격화에 의한 판매 부진·수익 악화(2.4%) 등이 있었음.
- 특히 아시아에서는 ① 요인(56.3%), ③ 요인(8.1%), ② 요인(4.3%)의 순으로, 북미에서는 ① 요인(66.9%), ② 요인(8.1%), ④ 요인(4.0%)의 순으로, 유럽에서는 ① 요인(43.6%), ② 요인(7.3%), ③ 요인(4.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음.

## 2) 매출액

-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2005년도에 185조 엔(전년대비 13.5% 증가)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그림 3 참고).
- 업종별로 보면, 2005년도에 제조업에서는 석유·석탄(전년대비 78.4% 증가, 고유가의 영향에 기인), 일반기계(동 22.6% 증가), 수송기계(동 10.0% 증가), 비제조업에서는 정보통신업(동 172.3% 증가, 일부 기업의 자본참가에 기인), 도매업(동 13.4% 증가) 등이 증가함.
- 지역별로 보면, 북미(66.2조 엔, 전년대비 10.7% 증가), 아시아(65.3조 엔, 동 23.8%로 대폭 증가), 유럽(38.2조 엔, 동 2.7% 증가)의 각 지역에서 모두 증가함(그림 4 참고).

## 3) 해외 생산

- 2005년도 전체 제조업 기업 중 국내 법인을 기준으로 한 해외생산비율(제조업)<sup>2)</sup> 역시 전년도 대비 0.5% 상승한 16.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함.
- 또한 본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sup>3)</sup>은 전년도 대비 0.7% 상승한 30.6%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그림 5 참고).

2) 전체 국내 법인 기준의 해외생산비율 = 현지법인(제조업) 매출액 / (현지법인(제조업) 매출액 + 국내법인(제조업) 매출액) × 100

3) 해외진출기업 기준의 해외생산비율 = 현지법인(제조업) 매출액 / (현지법인(제조업) 매출액 + 본사기업(제조업) 매출액) × 100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가 37.1%로 전년대비 1.1% 상승, 정보통신기계가 34.9%로 동 1.8% 상승, 정밀기계가 13.8%로 동 1.4% 상승한 반면, 화학은 14.8%로 동 0.5% 하락, 철강은 9.6%로 동 1.0% 하락함(부표 8 참고).
- 지역별 기여도를 보면, 아시아가 6.9%로 전년대비 0.5% 상승했지만, 북미는 5.7%로 동 0.1% 하락, 유럽은 3.0%로 동 0.1% 하락함(그림 6 참고).

#### 4) 수익

- 2005년도 현지법인의 경상이익은 7.6조 엔(전년대비 24.4% 증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함. 제조업은 4.0조 엔(동 11.1% 증가), 비제조업은 3.7조 엔(동 42.9% 증가)으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함(그림 7 참고).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수송기계(전년도 대비 33.8% 증가), 일반기계(동 30.4% 증가)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반면, 철강 및 정보통신기계는 각각 36.8%, 36.0% 감소함. 비제조업에서는 광업(동 143.4% 증가), 도매업(동 13.6% 증가) 등이 증가함.
- 지역별로는 북미(전년대비 15.9% 증가), 아시아(동 13.2% 증가), 유럽(동 21.4% 증가) 등 각 지역 모두 크게 증가함. 특히 아시아의 수준은 2003년 이후 북미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음.
- 아시아에서는 중국(전년대비 9.5% 증가), ASEAN4(동 6.3% 증가), NIEs3(동 22.1% 증가) 모두 증가함(그림 8 참고).

#### 5) 설비투자

- 2005년도 현지법인의 설비투자액은 4.4조 엔(전년대비 24.7% 증가)이었으며, 이 중 제조업부문 현지법인의 설비투자액은 3.5조 엔(전년도 대비 38.2% 증가)으로 2년 연속 증가 및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업종별로 보면, 화학(전년대비 96.2% 증가)이 대폭적으로 증가, 수송기계(동 60.2% 증가)도 증가하여 전체의 50%를 차지함(부표 9 참고).

- 지역별로 보면, 유럽(전년대비 47.7% 증가), 북미(동 46.0% 증가, 수송기계의 호조에 기인), 아시아(동 32.0% 증가, 수송기계 및 화학의 증가에 기인) 모두 증가함. 아시아에서는 NIEs3(동 78.8% 증가, 화학 증가에 기인), 중국(동 31.3% 증가, 수송기계 증가에 기인), ASEAN4(동 14.6% 증가) 모두 증가함.
- 한편 설비투자는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전년대비 1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유럽과 중국에서는 각각 3.8%,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부표 10 참고).

## 6) 기업전략과 해외사업 경영관리

### (1) 향후 해외 전략

- 향후 5년내 해외 전략으로는 다수 지역에서 '기존 현지법인에 의한 현상유지'가 최다로 나타남.
- 업종별로 보면, 4개 질문(해외사업 확대, 현상유지, 축소, 위탁)에 대해 '확대'에서는 중국의 석유·석탄 및 비철금속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었고, '현상유지'에서는 중국의 농림어업, ASEAN4의 건설업, NIEs3의 석유·석탄, 기타 아시아의 농림어업 등이 50%를 초과한 부문이며 '축소'와 '위탁'에서는 없었음.
-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서는 '현지법인의 신규설립(합병과 현지기업의 매수 등을 포함) 또는 자본참가 등을 통한 해외사업체제 확대'의 비율이 중국 25.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고, 이어서 기타 아시아가 14.0%였음.
- 한편 NIEs3는 '현지법인의 신규설립(합병과 현지기업의 매수 등을 포함) 또는 자본참가 등을 통한 해외사업체제 확대'의 비율이 5.6%로 아시아에서 가장 낮고, 반대로 '향후 해외사업체제 축소'의 비율이 0.8%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음(부표 11 참고).

### (2) 투자 결정 포인트

- 해외투자 결정시 포인트로는 '현지의 제품수요 왕성 또는 향후 수요 예상'이 54.0%로 최다였음. 다음으로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확보 가능'이 29.3%, '납입처를 포함하여 다른 일본계 기업의 진출실적 기준재'가 27.1%로 다른 항목들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보면,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확보 가능'의 비율이 높은 업종은 농림어업, 철강, 정밀기계 및 정보통신기계이며, '기술자의 확보 용이'는 정보통신업, 목재·종이·펄프, 건설업이었음. '부품 등의 현지조달 용이'는 목재·종이·펄프, '품질·가격면에서 일본에의 수입 가능'은 농림어업, 식료품, '현지의 제품수요 왕성 또는 향후 수요 예상'은 농림어업, 전기기계, 화학, 일반기계, '진출 지역 주변의 국가에서 제품수요 왕성 또는 향후 확대 예상'은 농림어업, 비철금속, '사회자본정비의 필요수준 충족'은 광업, '납입처를 포함하여 다른 일본계 기업의 진출실적 기존재'는 비철금속, 석유석탄, 철강이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서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에서 '현지의 제품수요 왕성 또는 향후 수요 예상'이 최다이며, 다음으로 높은 투자 포인트로는 제조업에서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확보 가능'이며, 비제조업에서는 '납입처를 포함하여 다른 일본계 기업의 진출실적 기존재'임. 중견기업에서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에서 '현지의 제품수요 왕성 또는 향후 수요 예상'이 최다였으며,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확보 가능'이 그 뒤를 이었음.

### 3. 국제협력은행 해외사업 조사보고

#### 가. 조사 대상 기업의 개요

- 해외에 현지법인을 3개 이상(그 중 생산거점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 기업 967개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594개사로부터 유효한 응답을 얻었음(유효응답률 61.4%).
- 조사 대상 기업의 분포는 이하와 같음. 매출액 규모로 보면 2,000억 엔 미만 기업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규모로 보면 500~5,000명 규모의 기업이 57%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업종별로 보면 역시 화학, 일반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음(부표 12~14 참고).
- 조사 대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해외 현지법인(생산거점+판매거점+연구개발거점+기타) 전체를 보면, 중국(2,384), ASEAN4(1,755), NIEs(1,638), 북미(1,604), EU15(1,440)의 순으로 분포됨.
- 해외 생산거점을 보면, 중국(1,592), ASEAN4(1,146), 북미(719), NIEs(593), EU15(444)의 순으로 거점 수가 많아 중국과 ASEAN이 일본의 주요 생산거점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연구개발거점을 보면, 북미(76), 중국(63), EU15(52), ASEAN4(23), NIEs(17)의 순으로 나타났음. 중국은 EU15보다 연구개발거점으로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나. 일본 제조기업 해외사업의 주요 특징

### 1) 해외생산 확대·강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강화가 제시되었음.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생산의 확대·강화’(2004년 1위→2006년 1위), ‘글로벌공급체인(supply chain)의 도입과 최적화’(2004년 10위→2006년 6위) 등이 중시되고 있음.
- 향후 3년간 해외사업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기업은 전 업종에서 82.8%(2005년 79.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업종별로는 화학(88.2%), 자동차(87.6%), 일반기계(85.7%) 등의 비율이 높음.
  - 그 결과 해외생산비율은 1995년 19.2%에서 2005년에는 29.1%(실적치), 2006년에는 30.4%(예측치), 3년 이후에는 34.9%(계획치)에 이를 것으로 보임(부표 15 참고).

### 2) 국내사업 강화

- 일본기업들은 해외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사업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의 확대는 내용면에서 뚜렷한 질적 차이를 나타냄.

- 국내사업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비율은 49.0%(2005년 47.0%), 현상유지의 비율은 44.9%(2005년 46.3%)로 국내사업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기업의 비율이 2% 포인트 상승하였음.
- 한편 국내사업 확대·강화를 도모하려는 기업 283개사에 국내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분야를 질문한 결과, 고부가가치품 생산이나 연구개발이 주력분야로 나타났음.
  - o ‘고부가가치품 생산’ (80.2%), ‘연구개발’ (55.8%), ‘판매·서비스’ (42.8%), ‘경영관리’ (14.8%), ‘범용품 생산’ (12.4%).

### 3) 지역별 해외사업 동향

- 해외사업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전 업종의 경우 중국의 화동·화남 지역, 태국, 북미에서 사업을 강화하려는 기업의 수가 많음.
- 전기전자의 경우 중국의 화동·화남, 태국, 북미, 베트남 등에서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 태국과 중국의 화남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9 참고).
- 각 지역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 중 기존 지역에서 사업규모를 확대하려는 기업의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러시아·CIS(75.3%), 중국(71.2%), 중·동구(70.7%), 기타 아시아·대양주(67.0%), 북미(56.3%)의 순으로 나타났음.
- 중국에서 사업규모를 확대하려는 기업의 비율은 아직 매우 높지만 2004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러시아·CIS, 중동, 중·남미, 기타 아시아·대양주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4) 확대·강화하려는 사업분야

#### ■ NIEs

- 생산기능보다는 판매기능에 중점을 두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그러나 한국, 대만에서는 생산기능을 강화하려는 기업 비율이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높은 편이고 반면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지역총괄기능을 강화하려는 기업 비율이 높은 편임.

#### ■ ASEAN4

- 태국 및 인도네시아에서는 생산기능이 판매기능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는 판매기능을 강화하려는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들 지역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기능을 강화하려는 비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 ■ 중국, 인도 및 베트남

- 화동 및 화남지역에서는 생산기능이 판매기능을 상회하고 있음. 그러나 그 외 지역에서는 그 반대이며 화북지역에서는 연구개발기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인도에서는 판매기능을 강화하려는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베트남에서는 생산기능을 강화하려는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 BRICs

- 진출한 기업 수로는 중국(2,384개사)이 브라질(139개사), 러시아(39개사) 및 인도(136개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그러나 향후 사업을 확대·강화하려는 기업의 비율을 보면 중국(2005년 71.2%→2006년 71.2%)은 전년과 변동이 없으나 브라질(37.8%→54.5%), 러시아(66.3%→75.3%) 및 인도(71.7%→80.4%)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확대·강화하려는 사업분야를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매기능을 강화하려는 기업의 비율이 생산기능을 강화하려는 기업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상에서 일본기업들이 생산거점 지역으로서 중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의 화남 및 화동지역, 베트남 등임을 알 수 있고 NIEs나 중국 이외의 BRICs 국가들은 판매거점 지역으로서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5) 국가·지역 간 사업이전 현황

- 향후 3년간 해당 지역에서 해외사업을 철수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전 지역을 질문한 결과 중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sup>4)</sup>

- 해외사업 거점 이동의 첫 번째 특징은 아시아지역 내의 이동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점이고 두 번째 특징은 아시아지역 내에서도 중국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진다는 점임.
- 특히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노동비용이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부터 중국으로 이전하는 일본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EU, 멕시코 등 으로부터 생산거점을 이전하려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음(부표 16 참고).

## 6) 판매 및 수익에 대한 만족도 평가

- 일본기업들은 NIEs와 ASEAN4 지역에서의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족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NIEs는 판매만족도, 수익만족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ASEAN4는 수익만족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북미와 중국의 경우, 판매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수익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사업이 목표수준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중·남미나 중·동구 지역에서는 아직 판매와 수익 양면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부표 17 참고).

## 7) 해외사업의 현지화

- 현지의 인재를 관리직에 등용하거나 부품소재의 현지조달률을 향상시키는 등 일본기업의 현지화는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기술은 여전히 일본 국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력과 부품 등의 조달에서는 ‘현지 거점 주도로 현지사정에 따라 현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본사 주도로 현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포함하면 약 80%의 기업들이 현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 4) 단, 이러한 사례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함.

- 기술에 대해서는 ‘현지화보다 일본 국내에 권한을 집중한다’는 방침이 약 30%인 반면 ‘본사 주도로 현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약 20%가 있음. 따라서 기술은 현지화를 추진하는 방침과 일본 국내에 집중하는 방침으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
- 노동과 부품 등에 대해서는 약 60%의 기업이 현지화를 실현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반면 기술의 경우 약 20%의 기업만이 현지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지화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서는 현지의 관리직이나 엔지니어 등 중간층 관리자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그러나 기술의 현지화에 있어서는 인적 요인 혹은 제도적 요인에 의한 기술 유출이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음.
- 현지화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가장 많이 지적된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애로사항이 가장 적게 지적된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순으로 나타났음.

## 8) 진출유망국가 순위

- 상위 10대 진출유망국가를 순위별로 보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미국, 러시아, 브라질,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음.
- 중국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득표율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음. 베트남은 태국을 제치고 3위로 부상하였고 브라질은 9위에서 7위로 상승하였음. 인도와 러시아는 득표율이 증가하였으나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은 득표율도 하락하였고 순위도 하락하였음.
- 한편 11위 이하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독일, 폴란드, 체코, 영국, 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이 많으며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업종에서 유럽 국가들을 유망하게 보고 있음(부표 18 참고).
- 진출이 유망한 국가별로 이유를 보면, 공통적으로 ‘시장의 성장성’이 매우 중시되고 있으며 미국, 한국,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값싼 노동력’의 활용 가능성이 중시되고 있음(부표 19 참고).

## 4. 요약 및 시사점

### 가. 요약

- 일본 경제산업성이 실시한 일본기업의 해외사업활동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05년도(2006년 3월 기준) 현재 해외 현지법인의 신규설립은 감소하고 철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현지법인 전체적으로는 매출액, 해외생산, 수익, 설비투자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해외 현지법인의 호조세에 따라 일본은 2005년 사상 최대의 소득수지 흑자(11조 3,817억 엔)를 기록한 바 있음.
- 일본기업들은 해외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시장성’ (현지의 제품수요 왕성 또는 향후 수요 예상)을 ‘저임금’ 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 설비투자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당분간 일본기업의 해외생산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해외 현지법인 신규설립이 감소세에 있는 것과 달리 해외사업을 확충할 경우 여전히 중국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경제산업성 보고서 요약

부 문	주요 내용
신규설립과 자본참가	3년 연속 제조업 및 비제조업 모두 감소 · 업종: 도매업, 서비스업, 수송기계, 일반기계의 순으로 감소 현저 · 지역: 아시아 대폭 감소(중국 3년 연속 감소), 북미 2년 연속 감소, 유럽 감소
철수	3년 만에 증가(제조업 증가, 비제조업 감소) · 제조업: 수송기계, 화학 대폭 증가 / 비제조업: 서비스업, 소매업 증가 · 지역: 아시아 증가(중국 증가, ASEAN4, NIEs3 감소), 유럽 대폭 증가, 북미 소폭 감소 철수 이유: ‘조직 재편·경영자원 개선 등에 따른 거점 통폐합’ 요인이 56.4%로 최대
매출액	1999년도 이후 지속 증가세 시현, 2005년도 사상 최고 수준 · 제조업: 석유·석탄 대폭 증가 / 비제조업: 정보통신업 대폭 증가 · 지역: 아시아 대폭 증가, 북미, 유럽도 증가
해외생산	해외생산비율은 2001년도 이후 지속 상승, 2005년도 30.6%로 역대 최고 수준
수익	2001년 이후 지속 증가, 2005년 사상 최고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 광업, 수송기계, 일반기계 대폭 증가</li> <li>· 지역: 유럽, 북미, 아시아의 순으로 크게 증가</li> </ul>
설비투자	2년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2005년도 사상 최고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 화학, 수송기계 대폭 증가</li> <li>· 지역: 유럽, 북미, 아시아 모두 30% 이상 증가</li> </ul>
해외전략과 투자포인트	5년내 해외전략: 해외사업 '확대', '현상유지', '축소', '위탁생산'의 4대 질문에 대한 응답 가운데 '현상유지'가 가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 '확대'의 경우 중국에서 석유·석탄, 비철금속이 가장 높았음.</li> <li>· 지역: 기타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현상유지'가 최다('확대'의 경우 중국이 가장 높았음. NIEs3의 경우 '확대'는 낮고, '축소'는 높았음.)</li> </ul> 해외투자 결정 포인트: '현지의 제품수요 왕성 또는 향후 수요 예상'이 최다

주: 2005년도 기준이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년도 대비임.

- 한편, 제조업 기업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은행의 분석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외 생산을 확대·강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양상은 경제산업성의 조사결과와 일치함. 즉 해외진출 일본기업들은 향후에도 설비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임.
- 다만, 경제산업성 조사결과 신규설립은 감소추세에 있고 철수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볼 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생산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확대·강화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해외사업 확대 지역으로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점차 하락세(이는 경제산업성의 조사결과와 일치)를 보이는 반면, 러시아, 중동, 중남미 등 여타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한편 향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분야(판매 및 생산 기능)와 판매·수익 만족도는 지역별로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음.
- 일본기업들이 판단하는 진출유망국가는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미국, 러시아, 브라질,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지명도가 하락세에 있는 가운데 베트남과 러시아는 순위가 상승하고 있음.
- 진출 유망 이유로는 '시장성장성'이 가장 중시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저임금'이 뒤를 잇고 있음.

**표 2. 국제협력은행 보고서 요약**

부 문	주요 내용
최우선 사업과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해외생산 확대·강화 중시 동시에 국내사업 강화(고부가가치품 생산, 연구개발 등 목적)도 중시
해외사업 확대 지역	중국 화동·화남, 태국, 북미에서 확대 지향 · 전기전자: 중국 화동·화남, 태국, 북미, 베트남이 높은 비중 · 자동차: 태국, 중국 화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 기존 지역에서의 사업 확대: 러시아, 중국, 중동구, 기타 아시아·대양주 등이 특히 높음(중국의 경우 2004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세).
해외사업 확대 사업분야	NIEs: 판매기능 중시 ASEAN4: 태국·인도네시아는 생산기능 중시, 말레이시아·필리핀은 판매기능 중시 중국: 화동·화남은 생산기능 중시, 화북은 연구개발기능 중시 인도: 판매기능 중시, 베트남: 생산기능 중시 BRICs: 중국 이외는 모두 판매기능 중시
사업 이전 희망 지역	해외사업 철수 기업의 이전 지역으로는 중국을 가장 선호
판매·수익 만족도	NIEs: 판매·수익 만족도가 모두 높음. ASEAN4: 수익만족도가 높음. 북미·중국: 수익만족도가 매우 낮음. 중남미·중동구: 판매·수익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현지화	노동력·부품조달의 현지화는 약 60%, 그러나 기술은 약 20%에 불과 애로요인: 중간층 관리층 확보 곤란, 기술유출 현지화 곤란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싱가포르가 가장 적었음.
진출유망국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미국, 러시아, 브라질, 한국 등의 순 중국의 경우 3년 연속 득표율 하락세, 베트남·브라질은 순위 상승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화학 등의 업종에서는 유럽 선호 진출 유망 이유로는 '시장 성장성'을 가장 중시, 다음으로는 '저임금' 중시

## 나. 시사점

- 일본정부는 2006년 4월 『글로벌 경제전략』을 발표하고, 해외시장의 투자·비즈니스 환경 정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환경 정비,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등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대책을 제시한 바 있음.
  - 해외시장의 투자·비즈니스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는 경제연대협정(EPA)·투자협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전략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협정 체결시 상대국의 제도인프라 개선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주요국의 투자·비즈니스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플랜을 마련하였음.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인프라 정비, 인재 확보·육성 지원 강화, 다양한 자금조달 환경 정비 등의 안이 제시되었음.

- 일본정부는 무역과 더불어 해외투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른바 ‘투자입국’을 천명한 바 있음.
- 『통상백서 2006』은 고령화 등의 진전으로 인하여 저축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가처분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소득수지 흑자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 특히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투자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음.
- 최근의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성과를 보면 일본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 법인의 매출, 수익 등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무분별한 해외투자 증대보다는 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면서 효과적인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 투자 확대를 노리고 있음.
- 우리의 경우, 그동안 기업의 해외진출시 통합 정보·컨설팅 서비스 부족, 국가차원의 종합적 전략 결여 등 체계적인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난 2월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해외진출 종합상담실인 ‘Global Korea’가 발족되는 등 일부 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부처간 유기적 협력 아래 대책별 일정을 수립·점검함으로써 성과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세계지역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정보에 대한 양적·질적 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국내와 해외의 적절한 분업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투자 증가가 국내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부표 1. 2005년도 업종별 현지법인 수**

(단위: 개사, %)

		현지법인 수	구성비
전 산업		15,812	100.0
제조업	<b>제조업 전체</b>	<b>8,020</b>	<b>50.7</b>
	식료품	393	2.5
	섬유	399	2.5
	목재·종이·펄프	144	0.9
	화학	1,089	6.9
	석유석탄	35	0.2
	철강	202	1.3
	비철금속	221	1.4
	일반기계	823	5.2
	전기기계	666	4.2
	정보통신기계	1,181	7.5
	수송기계	1,375	8.7
	정밀기계	273	1.7
	기타	1,219	7.7
비제조업	<b>비제조업 전체</b>	<b>7,792</b>	<b>49.3</b>
	농림어업	114	0.7
	광업	142	0.9
	건설업	268	1.7
	정보통신업	384	2.4
	운수업	1,006	6.4
	도매업	3,758	23.8
	소매업	501	3.2
	서비스업	937	5.9
	기타	682	4.3

자료: 經濟産業省(2007), 「第36回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이하 동일.

**부표 2. 2005년도 지역별 현지법인 수**

(단위: 개사, %)

		현지법인 수	구성비
전 지역		15,812	100.0
북미		2,819	17.8
아시아	아시아 전체	9,152	57.9
	중국	4,044	25.6
	ASEAN4	2,711	17.1
	NIEs3	2,035	12.9
유럽		2,379	15.0
기타		1,462	9.2

주: ASEAN4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며 NIEs3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임.

**부표 3. 2005년도 본사기업 규모별 현지법인 수 추이**

(단위: 개사, %)

	현지법인 수	구성비
전체	15,812	100.0
본사기업이 대기업인 현지법인	12,556	79.4
본사기업이 중견·중소 규모인 현지법인	3,256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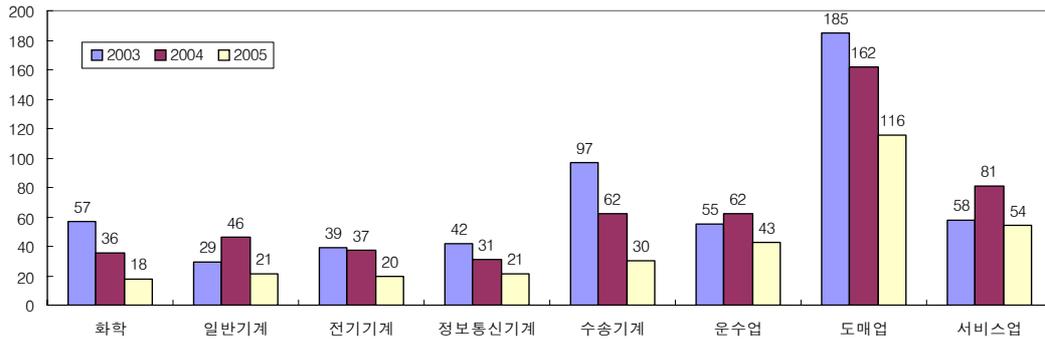
**부표 4. 해외 현지법인의 신규설립·자본참가 현황**

(단위: 개사)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제조업	439	323	239	238	331	398	434	390	318	182
비제조업	369	348	263	260	343	336	401	411	435	312
합계	808	671	502	498	674	734	835	801	753	494

**그림 1. 해외 현지법인의 업종별 신규설립·자본참가 현황**

(단위: 개사)



**부표 5. 해외 현지법인의 지역별 신규설립·자본참가 현황**

(단위: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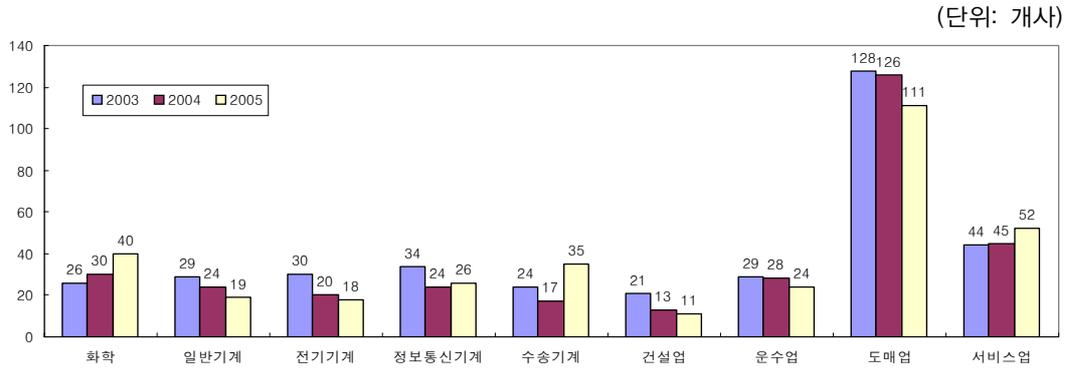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 지역	808	671	502	498	674	734	835	801	753	494
북미	102	106	82	105	120	115	74	90	83	76
아시아	전체	564	439	268	254	387	469	564	501	303
	중국	185	165	113	100	176	273	434	409	328
유럽	92	69	90	93	99	87	102	89	97	76

**부표 6. 해외 현지법인의 철수 현황**

(단위: 개사)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제조업	87	109	172	139	279	208	354	256	215	255
비제조업	125	140	244	245	417	223	346	344	323	305
합계	212	249	416	384	696	431	700	600	538	560

그림 2. 해외 현지법인의 업종별 철수 현황



부표 7. 해외 현지법인의 지역별 철수 현황

(단위: 개사)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북미	67	90	148	128	194	142	173	135	136	135
아시아	전체	59	69	147	138	285	134	323	263	238
	중국	16	19	50	58	110	45	108	94	92
유럽	49	52	65	64	126	80	124	105	98	122

그림 3.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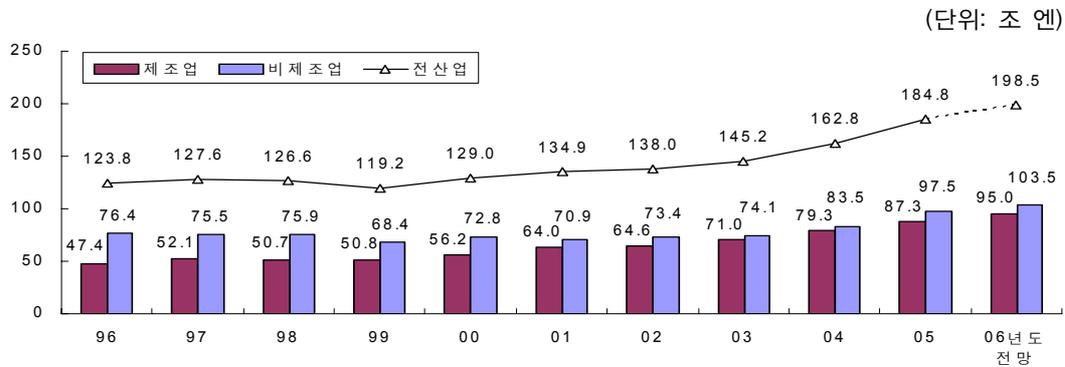


그림 4. 해외 현지법인의 업종별 및 지역별 매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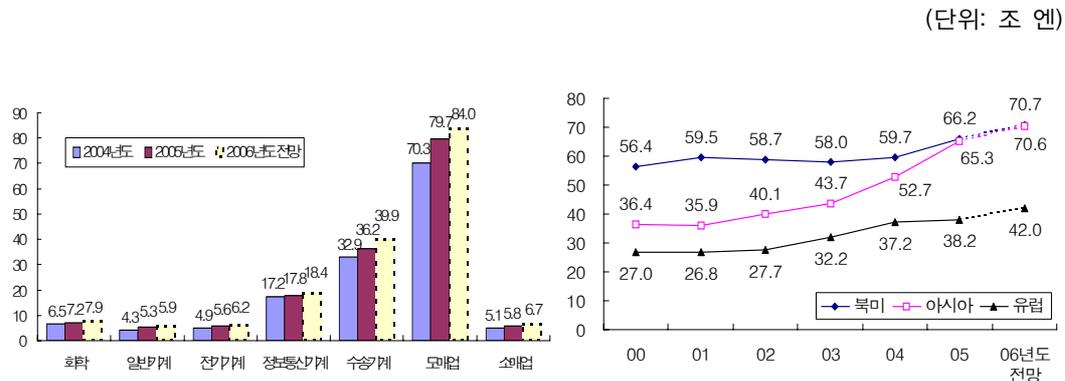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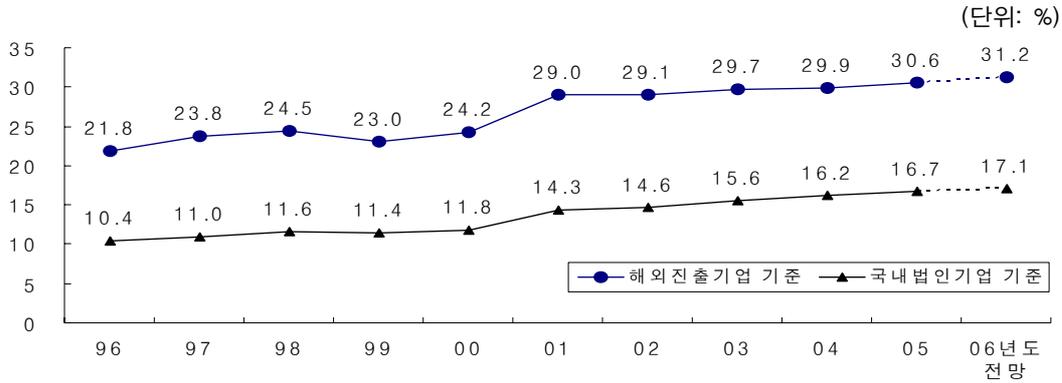


그림 5. 해외생산비율 현황(제조업)



부표 8. 업종별 해외생산비율 현황(전체 제조업 국내 법인 기준)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제조업 전체	11.8	14.3	14.6	15.6	16.2	16.7
식품	2.7	4.5	4.6	4.9	4.4	4.2
섬유	8.0	6.7	6.6	8.4	7.3	6.3
목재·종이·펄프	3.8	3.8	4.3	3.8	4.2	3.0
화학	11.8	12.6	13.4	13.6	15.3	14.8
석유·석탄	1.4	1.5	2.0	1.6	1.8	2.6
철강	14.0	16.2	8.9	9.4	10.6	9.6
비철금속	9.4	10.2	10.1	7.9	9.4	10.2
일반기계	10.8	10.2	10.1	10.7	11.7	12.9
전기기계	18.0	21.6	21.0	23.4	9.5	11.0
정보통신기계					33.1	34.9
수송기계	23.7	30.6	32.2	32.6	36.0	37.1
정밀기계	11.2	12.2	12.9	12.8	12.4	13.8
기타 제조업	4.4	4.4	5.1	5.0	6.2	7.2

그림 6. 지역별 해외생산비율 현황(전체 제조업 국내 법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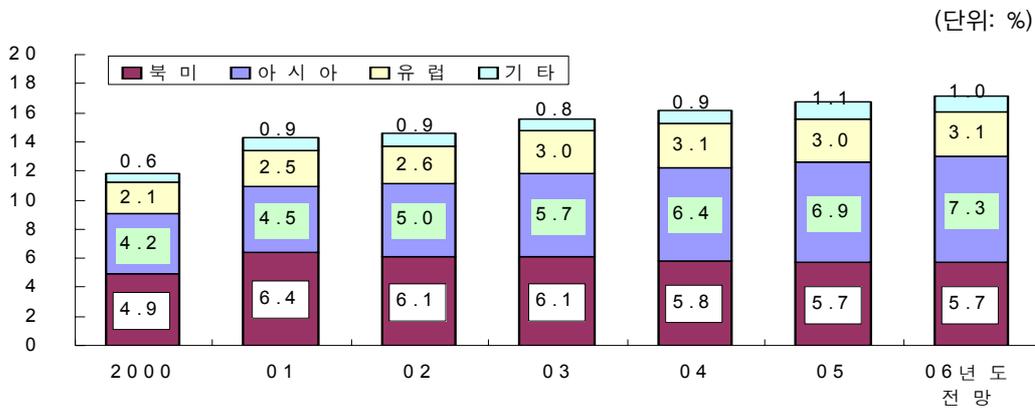


그림 7. 해외 현지법인의 경상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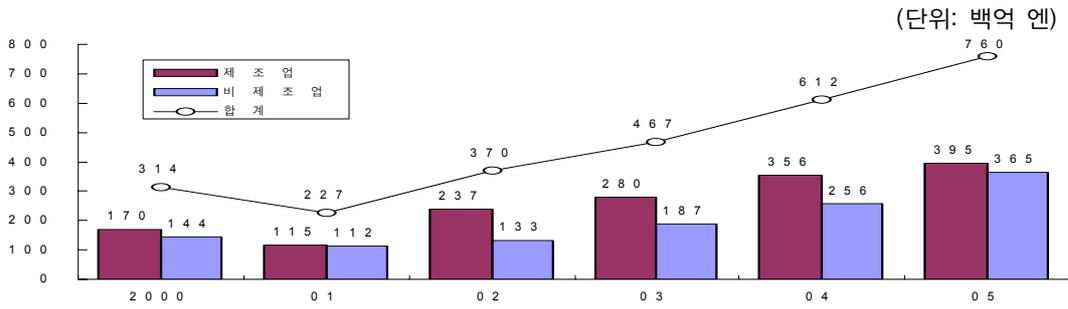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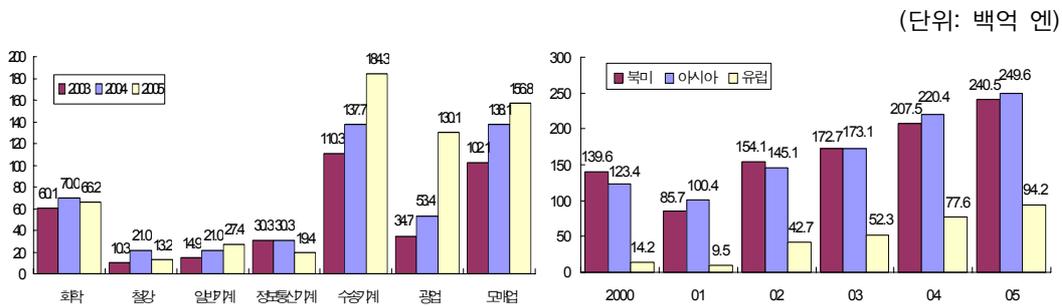


그림 8. 해외 현지법인의 업종별 및 지역별 경상이익 추이



부표 9. 해외 현지법인의 업종별 설비투자 현황

(단위: 억 엔, %)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전망)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 산업	35,379	25.6	44,121	24.7	50,655	14.8
제조업 전체	25,256	19.8	34,909	38.2	40,081	14.8
식료품	642	8.5	799	24.5	921	15.3
섬유	485	10.4	848	74.8	739	-12.9
목재·종이·펄프	235	7.5	344	46.4	484	40.7
화학	2,042	12.9	4,007	96.2	5,960	48.7
석유·석탄	36	128.4	159	341.7	57	-64.2
철강	1,186	141.5	718	-39.5	1,092	52.1
비철금속	852	159.1	640	-24.9	732	14.4
일반기계	743	17.4	948	27.6	1,097	15.7
전기기계	1,613	16.7	2,452	52.0	2,143	-12.6
정보통신기계	3,746	27.4	3,437	-8.2	4,028	17.2
수송기계	10,499	6.0	16,824	60.2	19,094	13.5
정밀기계	283	7.4	393	38.9	440	12.0
비제조업	10,122	43.0	9,213	-9.0	10,574	14.8
농림어업	62	-54.3	60	-3.2	74	23.3
광업	3,262	392.6	1,655	-49.3	1,261	-23.8
건설업	110	244.6	106	-.6	84	-20.8
정보통신업	65	-11.2	93	43.1	134	44.1
운수업	910	-32.5	1,611	77.0	2,739	70.0
도매업	4,313	50.6	4,114	-4.6	4,492	9.2
소매업	766	-23.6	885	15.5	1,021	15.4
서비스업	393	0.0	505	28.5	501	-0.8

**부표 10. 해외 현지법인의 지역별 설비투자 현황**

(단위: 억 엔, %)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전망)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 지역	25,256	19.8	34,909	38.2	40,081	14.8	
북미	6,566	-16.7	9,585	46.0	10,937	14.1	
아시아	아시아 전체	13,256	45.9	17,501	32.0	19,872	13.5
	중국	4,905	53.5	6,442	31.3	6,186	-4.0
	ASEAN4	5,444	35.0	6,238	14.6	7,211	15.6
	NIEs3	2,210	53.4	3,952	78.8	5,471	38.4
유럽	3,876	16.2	5,723	47.7	5,506	-3.8	

**부표 11. 향후 지역별 해외전략**

(단위: %)

		해외사업 확대	현상유지	축소	위탁 생산
북미		10.1	35.3	1.5	1.4
아시아	중국	25.2	40.0	0.5	6.5
	ASEAN4	11.8	33.1	0.7	3.2
	NIEs3	5.6	27.4	0.8	2.0
	기타	14.0	10.5	0.2	2.7
유럽		11.1	21.4	1.0	2.4
기타 지역		5.2	10.7	0.3	2.1

**부표 12. 매출액별 기업 분포**

(단위: 개사, %)

매출액 규모	기업 수	구성비
500억 엔 미만	258	44.3
500억 엔~1,000억 엔 미만	89	15.3
1,000억 엔~2,000억 엔 미만	85	14.6
2,000억 엔~3,000억 엔 미만	38	6.5
3,000억 엔~5,000억 엔 미만	30	5.2
5,000억 엔~1조 엔 미만	41	7.0
1조 엔 이상	41	7.0
합계	582	100

자료: 國際協力銀行(2006.11), 「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 이하 동일.

**부표 13. 종업원 규모별 기업 분포**

(단위: 개사, %)

종업원 규모	기업 수	구성비
300인 이하	115	19.4
301인~500인	83	14.0
501인~1,000인	129	21.7
1,001인~5,000인	209	35.2
5,001인~10,000인	30	5.1
10,001인 이상	28	4.7
합계	594	100

부표 14. 업종별 기업 분포

(단위: 개사, %)

업종	기업 수	구성비
식료품	29	4.9
섬유	33	5.6
목재 및 목제품	4	0.7
종이 및 펄프	5	0.8
<b>화학</b>	86	14.5
화학(의약품 제외)	76	12.8
의약품	10	1.7
석유, 고무	14	2.4
질업, 토석제품	20	3.4
철강	14	2.4
비철금속	19	3.2
금속제품	25	4.2
<b>일반기계</b>	56	9.4
일반기계조립	47	7.9
일반기계부품	9	1.5
<b>전기전자</b>	121	20.4
전기전자조립	35	5.9
전기전자부품	86	14.5
수송기계(자동차 제외)	6	1.0
<b>자동차</b>	91	15.3
자동차조립	7	1.2
자동차부품	84	14.1
<b>정밀기계</b>	28	4.7
정밀기계조립	18	3.0
정밀기계부품	10	1.7
기타	43	7.2
합계	59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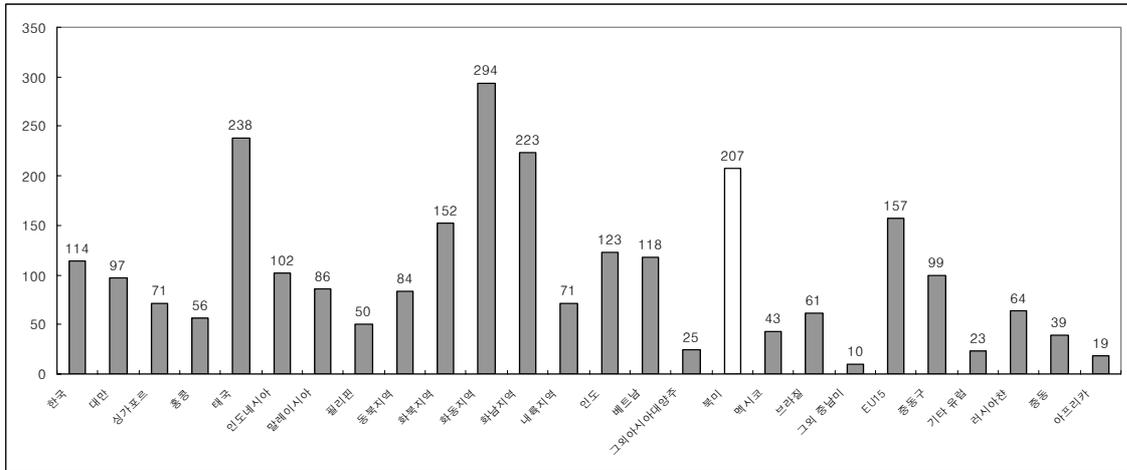
부표 15.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생산비율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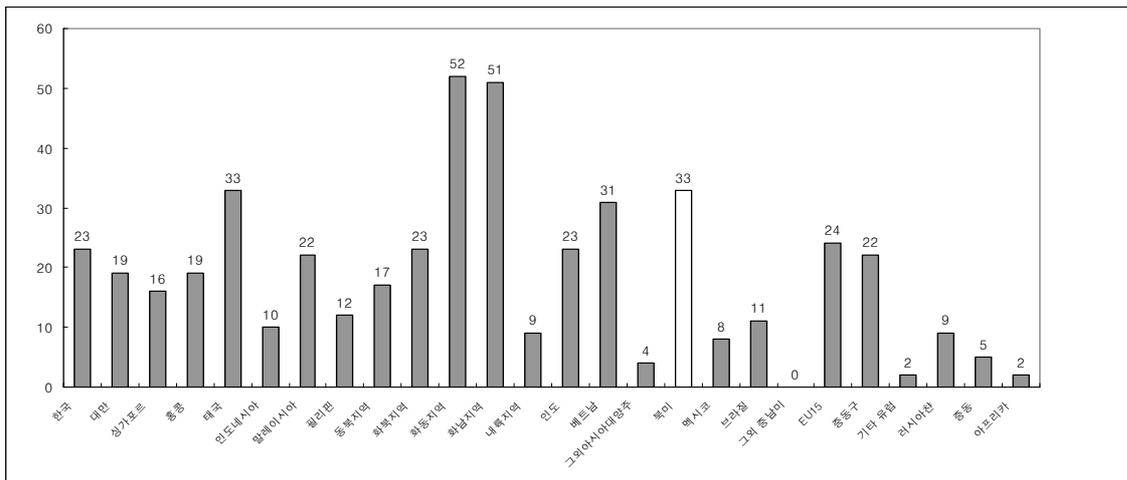
	응답 기업 수	2005년(실적치)	2006년(예측치)	3년 후(계획치)
<b>전 업종</b>	<b>492</b>	<b>29.1</b>	<b>30.4</b>	<b>34.9</b>
화학	66	21.2	22.4	28.0
일반기계	49	19.9	21.1	25.4
전기전자	96	43.3	44.3	48.0
자동차	76	29.6	31.6	37.0

그림 9. 해외사업을 확대하려는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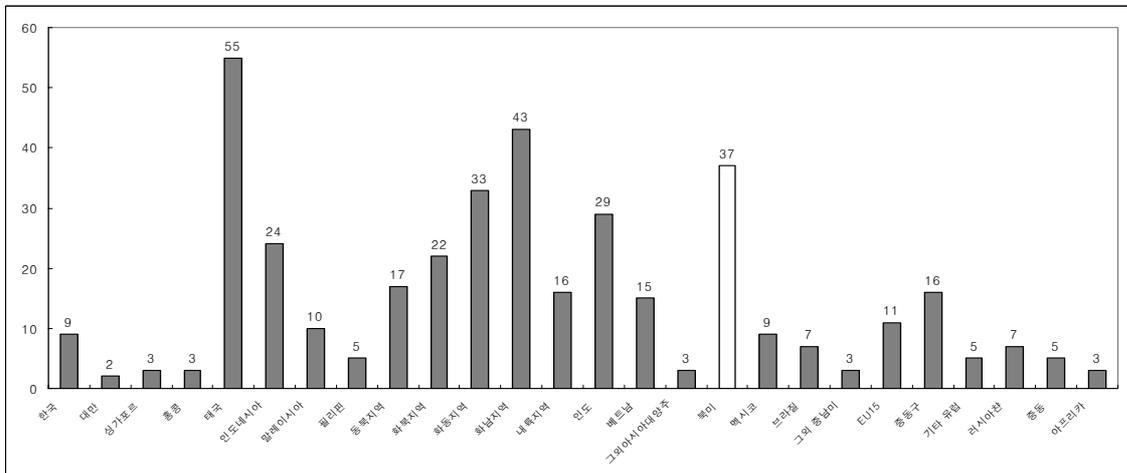
[전 업종]



[전기전자]



[자동차]



**부표 16.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이전 사례**

철수 지역	기능	이전 지역
한국	생산	중국
대만	생산	중국·인도네시아
대만	생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생산	중국
싱가포르	생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생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판매	태국
홍콩	판매	중국
홍콩	판매	중국
홍콩	판매	중국
태국	생산	중국
태국	생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생산	중국
말레이시아	생산	중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판매	싱가포르
필리핀	생산	인도네시아
북미	생산	필리핀
북미	생산	멕시코·브라질
멕시코	생산	중국·베트남
EU15	생산	싱가포르
EU15	생산	중국

**부표 17. 일본기업 해외사업 만족도 평가**

	2005년		2006년	
	수익만족도	판매만족도	수익만족도	판매만족도
NIEs	3.13	3.06	3.13	2.99
ASEAN	3.11	2.91	3.05	2.95
중국	2.91	2.74	2.99	2.79
북미	2.94	2.71	3.02	2.75
EU15	2.98	2.88	2.98	2.86
중남미	3.05	2.92	2.84	2.82
중동구	2.88	2.77	2.79	2.83

주: 평가기준은 당초 목표수준에 비해 불충분(1점), 약간 불충분(2점), 어느 쪽도 아님(3점), 약간 만족(4점), 만족(5점)으로 평가하며 판매나 이익의 증감을 나타내는 기준이 아님에 주의.

**부표 18. 진출유망 국가·지역**

(단위: 개사, %)

순위	2006년			2005년		
	국가	기업 수(484)	득표율	국가	기업 수(483)	득표율
1	중국	372	77	중국	397	82
2	인도	229	47	인도	174	36
3	베트남	159	33	태국	149	31
4	태국	142	29	베트남	131	27
5	미국	104	21	미국	96	20
6	러시아	98	20	러시아	62	13
7	브라질	45	9	한국	52	11
8	한국	44	9	인도네시아	45	9
9	인도네시아	39	8	브라질	36	7
10	대만	27	6	대만	32	7
11	말레이시아	22	5	말레이시아	23	5
12	독일	15	3	멕시코	16	3
13	폴란드	15	3	독일	14	3
14	체코	15	3	필리핀	13	3
15	멕시코	14	3	싱가포르	12	2
16	필리핀	12	2	체코	12	2
17	영국	12	2	영국	9	2
18	헝가리	8	2	폴란드	9	2
19	캐나다	6	1	프랑스	8	2
20	호주	6	1	호주	8	2

**부표 19. 10대 진출유망국가별 유망 이유**

	1위	2위	3위
중국(362사)	시장의 성장성	저렴한 노동력	조립업체에의 공급거점
인도(223사)	시장의 성장성	저렴한 노동력	우수한 인재
베트남(154사)	저렴한 노동력	시장의 성장성	타국 리스크 분산의 수용
태국(133사)	저렴한 노동력	시장의 성장성	조립업체에의 공급거점
미국(101사)	시장규모	시장의 성장성	인프라 정비
러시아(94사)	시장의 성장성	저렴한 노동력	조립업체에의 공급거점
브라질(44사)	시장의 성장성	저렴한 노동력	조립업체에의 공급거점
한국(41사)	시장의 성장성	시장규모	인프라 정비 및 시장의 수익성
인도네시아(37사)	시장의 성장성	저렴한 노동력	제3국 수출거점 및 시장규모
대만(26사)	시장의 성장성	시장규모	투자에 대한 우대세제